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¹⁾



Policy Strategi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imes of Covid-19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 글은 2020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험한 육아 분야의 변화와 영향, 이로 인해 드러난 사각지대와 공백에 관해 알아보으므로써, 향후 육아 분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보육·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 뉴노멀이 된 감염팬데믹하의 비대면 상호작용이 생애초기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코로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육아지원체계의 대응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재난상황에서의 긴급돌봄체계 정비와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미래세대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아동중심의 누리과정 교육력 제고에 관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육, 자녀돌봄에서 가족과 부모, 기관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보육·돌봄 영역에서도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적응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

나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지원기관의 전면 휴원·휴업·휴관 조치가 이루어지고 기관이 긴급돌봄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녀돌봄이 주된 양육

1)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문무경(2020). 「코로나19와 영유아 교육·보육·돌봄(ECEC) 대응 전략」 보고서 내용을 포괄 인용함.

현황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그간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공적돌봄체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개별 가정과 여성(모, 조모)에게 돌봄의 역할이 회귀하였고 여전히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의 제약 등 아동을 둘러싼 양육 환경은 학대와 폭력, 소외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아동 대상의 사회적 돌봄과 교육은 단절과 일시 회복을 반복하면서 아동 간, 개별 가정 간의 격차를 누적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가정 내 자녀돌봄과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돌봄의 서비스 이용 변화에 기초하여 이를 통해 드러난 아동돌봄의 어려움과 공백, 격차를 살펴보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육아지원과 일-가정 양립의 정책(예: 긴급돌봄 운영,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이 개별 가구에 미치는 수혜와 이용 현황이 어떠한지 2020년 3월과 7월 두 차례의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체계에 관한 쟁점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이로써 셋째,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육아지원체계 전반과 아동 교육·보육·돌봄에 관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2. 아동 양육·돌봄 현황 및 주요 쟁점²⁾

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자녀 양육 및 돌봄 현황

1) 자녀 양육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

팬데믹 대응 초기에 해당하는 3월 말 시점에 시행한 부모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과 근로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고, 부모의 학력에 따라 부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응답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특별재난 지역(대구, 청도, 봉화, 의성)에서 경제활동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으며(5점 평균 2.78점 vs. 2.64점; 소득이 줄어들음: 특별재난 지역 43.6%, 비특별재난지역 29.3%), 취약 특성(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취약가구 14.2%, 비취약가구 5.2%)와 부부 관계(취약가구 20.4%, 비취약가구 9.4%)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최윤경 외(2020)에서 수행한 초등 3학년(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온라인조사 결과(1차: 3월 말(n=564), 2차: 7월 초(n=349))에 기초함. 조사회사 패널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지역, 소득, 취업(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함.

표 1. 코로나19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시간 사용/관계의 변화 - 만 0~8세 아동 양육 가구(n=564)

(단위: %, 점)

구 분		줄어들/나빠짐(%) (부정응답)	늘어남/좋아짐(%) (긍정응답)	평균(점)
경제적 변화	가구소득	32.1	5.1	2.61
	부 근로소득	25.5	4.8	2.70
	모 근로소득	19.7	4.6	2.71
	가구지출	28.7	36.3	3.12
	자녀양육비 지출	30.3	29.8	3.01
시간 사용 변화	부 근로시간	19.9	9.0	2.85
	모 근로시간	19.0	7.4	2.78
	자녀와 보내는 시간	5.3	72.2	4.07
	집 안에 있는 시간	3.2	85.5	4.46
	TV/미디어 이용 시간	3.4	77.8	4.18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	79.5	6.9	1.64
관계 변화	자녀와의 관계	6.6	39.7	3.45
	부부 관계	10.3	20.9	3.15

주: 상당히 줄어듦/나빠짐 1점, 약간 줄어듦/나빠짐 2점, 변화 없음 3점, 약간 늘어남/좋아짐 4점, 상당히 늘어남/좋아짐 5점.

자료: 최윤경 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1차 조사(2020. 3. 25.~3. 27.) 결과, pp. 58-60.

전반적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다소+많이 증가하였다 긍정응답: 85.5%)과 자녀와 보내는 시간(72.2%), TV/미디어 이용 시간(77.8%)과 온라인 소통 시간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부모-자녀 관계(39.7%)와 부부 관계(20.9%)가 좋아졌다는 긍정응답이 보고되었다. 관계가 나빠졌다는 부정응답은 부모-자녀 관계 6.6%, 부부 관계 10.3%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동안 자녀 양육 가구의 가족 관계에는 긍·부정의 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긍정적 영향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돌봄공백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

요 육아지원 인프라의 휴원·휴업 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낮 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이 3월 말 36.2%, 7월 초 37.5%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연중 일정 수준을 보였다.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구에서, 그리고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특별재난지역, 맞벌이 가구와 취약가구, (영유아자녀 가구에 비해)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돌봄 취약층의 특성을 보여 준다.

표 2. 휴원/휴교 기간 동안 돌봄공백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합계	긍정응답률	(수)
1차 조사(3월 말)	31.6	32.3	26.6	9.6	100.0	36.2	(564)
2차 조사(7월 초)	28.9	33.5	31.2	6.3	100.0	37.5	(349)

자료: 최윤경 외(2020). 1차(3. 25.-3. 27.), 2차(7. 8.-7. 10.) 조사 결과.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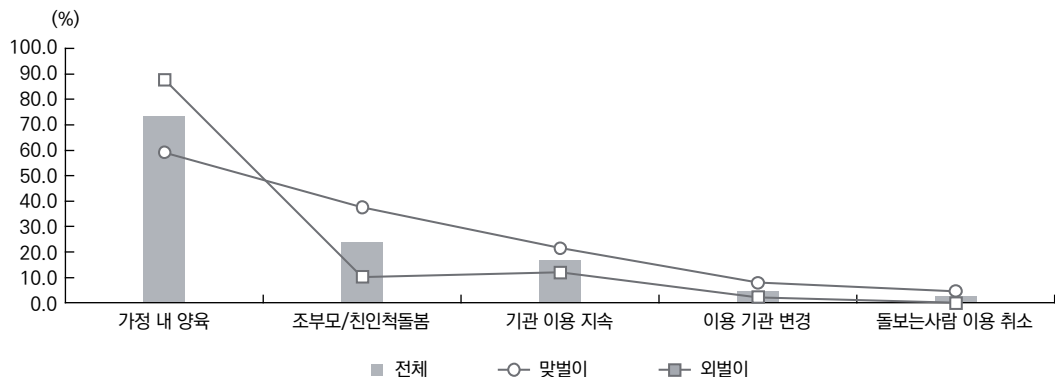
3) 서비스 이용 변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요 육아지원 인프라의 휴원·휴업 조치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한 3월 시점, 코로나 상황 전후로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59.0%, 없었다는 응답이 41.0%로 나타났다.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주로 가정 내 양육을 한다(7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음 24.0%, 자녀가 다니던 기관 이용을 지속함 16.8%,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함 4.8%, 돌보는 사람이

용을 그만둠 2.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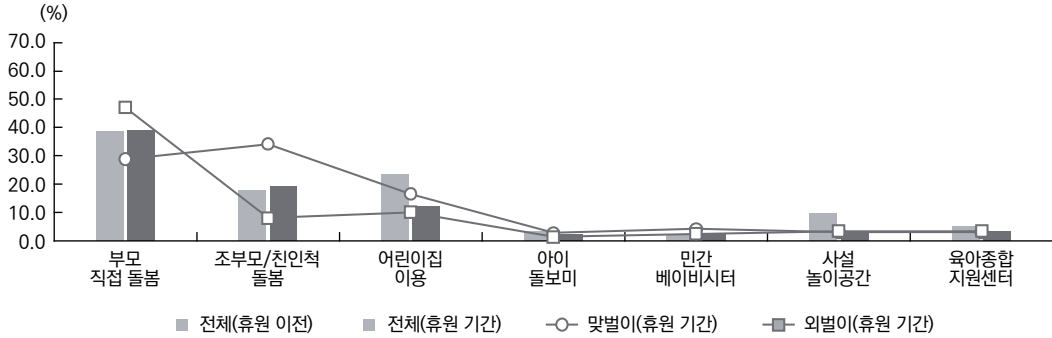
초등 3학년(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부모 직접 돌봄과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증가하고 사교육 이용이 감소하였다. 맞벌이 여부와 자녀 연령별로 자녀돌봄과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부모 직접 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돌봄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초등자녀(12.8%)에서 많았으며, 이후 전체적으로 개별 가정에서의 돌봄인력(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수요가 증

그림 1.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이후 자녀돌봄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 아동(만 0~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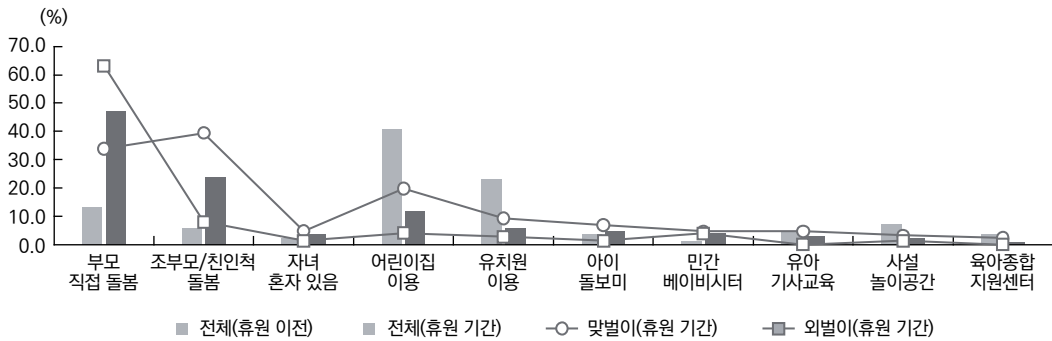
자료: 최윤경 외(2020). 1차 조사(2020. 3. 25.-3. 27.) 결과. p. 63.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그림 2.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 - 영아(만 0~2세) 자녀



자료: 최윤경 외(2020). 1차 조사(2020. 3. 25.~3. 27.) 결과, p. 64.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그림 3.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 - 유아(만 3~5세) 자녀



자료: 최윤경 외(2020). 1차 조사(2020. 3. 25.~3. 27.) 결과, p. 65.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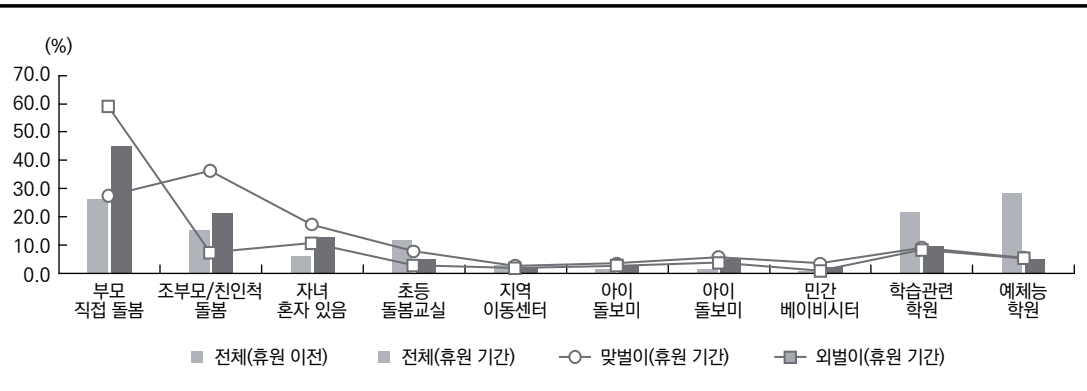
가세를 보이고 기타 서비스 이용³⁾의 증가와 함께 초등자녀의 경우 사교육 이용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였다. 재난상황에서 교육·보육 기회의 단절을 방지하는 공공 서비스 운영의 온-오프라인 다변화 전략이 요구되며,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

화하고 일-생활과 일-돌봄의 균형을 회복하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육·보육·돌봄의 이용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전체 가구를 영아(만 0~2세), 유아(만 3~5세), 초등 저학년(만 6~8세) 자

3) 코로나19 만나 오히려 2배 성장한 아이돌봄서비스 시장(서울경제, 2020. 8. 17.) 참조.

그림 4.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 - 초등 1~3학년(만 6~8세) 자녀



자료: 최윤경 외(2020). 1차 조사(2020. 3. 25.-3. 27.) 결과. p. 65.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구분하여 휴원 전-후의 서비스 이용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4).

3월 시점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기관 등록/입학을 철회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43.4%, 그렇지 않다 56.6%로 나타났다. 현재 사립/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등록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한 폐원 증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었음을 짐작케 한

다. 기관 등록/입학을 취소했다는 응답이 비취약 가구에 비해 취약가구에서 많아, 취학 전 교육력 편차의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4) 가정 내 자녀돌봄

가정 내 자녀돌봄의 역할 수행을 살펴보면, 부모 직접 돌봄이 증가하고, 부모 직접 돌봄 중에서의 돌봄과 부모 함께 돌봄의 비중도 증가하였

표 3. 휴원기간 전-후 가정 내 자녀돌봄(2월 말 대 3월 말)

(단위: %)

구분	코로나 전-후 시점	부모 직접 돌봄	아버지가 주로 돌봄	어머니가 주로 돌봄	부모 함께 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영아자녀	전	33.2	3.6	29.2	7.9	18.6
	후	39.5	7.5	36.8	12.3	20.9
유아자녀	전	15.0	1.4	13.6	4.3	6.4
	후	38.2	10.0	29.6	15.0	26.4
초등자녀	전	24.4	5.0	20.1	4.3	12.6
	후	44.7	7.0	35.2	7.7	20.3

주: 중복응답 기준. 영아(n=253), 유아(n=280), 초등1~3학년(n=443).
 자료: 최윤경 외(2020). 1차 조사(2020. 3. 25.-3. 27.) 결과. 최윤경·문무경(2020). p. 301.

다. 그러나 자녀돌봄에서 모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 성별 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과 조부모/친인척의 돌봄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부모의 돌봄 역량 및 가정 양육 환경의 제고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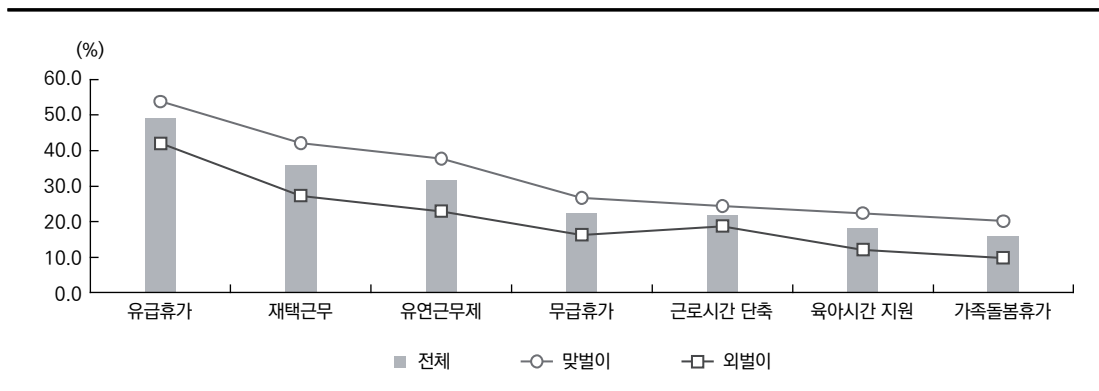
나. 자녀돌봄 지원·제도 이용

동 기간 정부는 감염 확산의 방지를 위해 가정 내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팬데믹 공표로 육아지원 인프라가 긴급돌봄체계로 전환하면서 기관 운영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원 등록 기준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지속하고 유치원 학부모 수업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였다. 개별 가정의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의 지원 기간을 1인당 5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

대하였으며, 가정 내 돌봄의 부담 완화를 위해 4개월 아동돌봄쿠폰을 일괄 지급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적용하였다(최윤경 외, 2020).

3월 말 시점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휴원기간 제공된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물품지원(53.2%)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유급휴가(49.2%), 재택근무(36.1%), 유연근무제(31.9%), 무급휴가(22.4%), 근로시간 단축(21.9%)과 육아시간 지원(18.3%)의 순을 보였다. 대응 초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육아지원 인프라의 휴원 조치 이후 일하는 부모가 자녀돌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유급휴가'로 나타났고 '무급휴가'의 사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돌봄체계의 휴원·휴업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을 위한 선택이 유급/무급휴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난상황에서의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의

그림 5. 휴원 이후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 - 맞벌이/외벌이 가구



주: 본인 직장 기준 응답. 항목별 비례당 응답 제외 후 '소극적+적극적으로 활용' 응답을 합친.
 자료: 최윤경 외(2020). 1차 조사(2020. 3. 25.-3. 27.) 결과, p. 71.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연계가 보다 촘촘히 설계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시간지원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이용률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으나 외벌이 가구의 이용률도 일정 수준을 보인다. 부의 이용률이 약 15~50% 범위를 보였으나, 일하는 부-모의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지원, 가족돌봄휴가 이용 등에서 모의 이용이 부에 비해 일관되게 많은 성별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감염위험 상황에서 부모가 선호하는 양육지원 방식은 '부모 직접 돌봄'과 '가정 내 양육'으로 나타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지원'과 '시간지원'의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비증있게 응답되었다. 부모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제도과 현재 정책 설계 및 지원·제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맞는 제도적 설계와 주요 지원 간의 연계, 돌봄공백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 코로나19 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2020년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발생해, 취학 전 높은 ECEC 이용률과 접근성, 공격돌봄체계의 확충으로 성장과 확대선상에 있던 교육·보육 서비스와 정규과정의 운영이 크게 위축되었다. 강화된 소독 및 방역 체계하에서 긴급돌봄과 제한된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감염예방과 긴급돌봄의 운영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향후 지속되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본연의 유아 교육·보육의 운영 방향은 전환점

을 맞이하고 있다. 감염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였는지, 교직원의 고용유지 및 반/학급 구성의 변화, 교육·보육과정과 긴급돌봄의 운영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단계별 기관 운영 지원 및 소독·방역 지침의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감염심각단계로의 격상 조치에 맞춰 중앙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휴업 조치와 긴급돌봄체계의 가동으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긴급돌봄 운영하에서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치원 원비 반환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긴급돌봄의 운영과 교직원의 고용유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다(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및 보건복지부/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최윤경 외, 2020).

그러나 감염위험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과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감염 위험 초기와 비등한 방역 관리와 소독에의 요구 대비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상세 정보와 관련 지식,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업데이트된 안내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이 정비되고 이에 따른 상세 지침과 백서가 보완되어 현장에 배포될 필요가 있다.

2) 긴급돌봄체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첫째,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긴급돌봄의 이용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5월 말 시점 긴급보육 이용률이 전국 평균 약 72%로 나타났다. 이로써 감염위험 단계에서의 긴급돌봄의 의의와 실효성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거리두기 단계별로 감염위험의 심각 수준에 따른 필수인력(Essential Workers) 우선 순위 등 세분화된 긴급돌봄 운영과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긴급돌봄에 등원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교육·보육과정 운영과 별도의 긴급돌봄 제공, 온라인 원격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유치원·어린이집 원장 FGI 참조. 최윤경 외, 2020). 재난상황에서 교육·보육과정의 커리큘럼 운영과 돌봄 서비스의 제공, 온-오프라인 원격교육 병행, 그리고 가정 내 돌봄 지원과 방역·소독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교사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아동중심의 심리방역과 바깥놀이/신체활동의 기준 마련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함께 교직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과 어린이집 원장의 약 40%는 재원 아동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최윤경 외, 2020).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리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위험 때문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룹활동 대신 아동 혼자놀이 위주로 진행되며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교육·보육과정의 운영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조기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심리방역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영유아의 소통과 상호작용, 신체활동과 바깥놀이가 매일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보육·돌봄의 최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3. 육아지원체계 대응력 제고 방안⁴⁾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가정 내 돌봄과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과 관점이 요구된다. 육아지원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원체계 개선과 아동중심의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최윤경, 문무경 (2020). 「코로나19와 영유아 교육·보육·돌봄(ECEC) 대응 전략」 보고서 내용 일부를 재구성함.

가. 육아지원체계

1) 재난상황의 육아지원체계 재구조화

우선 재난상황에서의 육아지원 및 교육·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육아지원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교직원 고용유지의 세부 전략과 기관 운영의 비용지원체계의 연동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의 지원 기간 확대와 아동돌봄쿠폰 지급, 유연근무제의 권장과 기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등 단계별로 육아지원의 확대가 시간과 비용, 서비스의 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원·제도의 충분성과 대상의 포괄성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 자녀 양육 가구의 35% 이상에서 나타나는 돌봄공백의 경험과 아동혼자있음 그리고 사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의 증가세를 볼 때, 공적돌봄체계가 휴원·휴업 조치하 긴급돌봄의 운영으로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다. 공적 인프라의 확충이 재난상황에서 보건·건강 분야 대응력을 제고하여 일정 수준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플랜 비(B)로서의 부분·전면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내 육아지원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돌봄의 공백과 교육·보육 경험의 불평등, 아동학대와 폭력에의 노출을 완화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2) 긴급돌봄체계 정비

돌봄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센터 및 초등돌봄교실을 통한 ‘긴급돌봄’을 운영하면서 팬데믹 이전의 육아지원체계를 대체하는 긴급돌봄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연내 5번 이상의 등원 연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개별 가정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돌봄 운영과 교직원의 고용유지 등에 현장의 어려움과 혼선이 있었다. 감염팬데믹 초기 10% 내외의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세를 유지, 5월 말 시점 전국 70%를 상회하고 이후 이용률 70~80%를 상회하는 긴급돌봄이 과연 팬데믹 하에서의 돌봄체계로서 적절히 가동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최윤경 외, 2020).

감염 위험 수준과 단계별로 긴급돌봄의 요건과 재원아 구성 및 공간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소규모 학급 운영), 소집단 유지와 복식학급 및 분반으로 탄력적 운영의 가능성, 공간 활용과 간격 유지 기준의 제공이 필요하다. 교직원의 역할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 기관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지원과 모니터링, 방역·소독과 보건 관련 업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수행으로 업무가 부가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재난상황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직원의 감염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의 부재도 확인되었으므로, 현재의 긴급돌봄체계 운영 기준과 인력지원의 요건

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등록 아동의 감소와 심각 단계 등원아동의 감소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고 교대근무와 무급/유급휴가 사용 등 불규칙한 근로 상황도 나타났으므로, 고용유지와 인력배치의 요건을 고려한 논의가 요구된다.

3)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완화

코로나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조치가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수업일수 조정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출석 인정과 학교준비도, 온-오프라인 교육·보육·돌봄 과정의 운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교직원 업무 수행과 가정 내 양육지원 등 역할 범위, 인력지원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 외에 국공립-민간/사립 기관 유형 간의 차이도 크다.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지침 제공 시, 지역별로 시도청(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유치원) 담당자 협의체의 가동 등 재난상황 유아 교육·보육 및 국공립-민간/사립 간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

장애, 빈곤, 한부모/조부모 가족 등 취약환경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취약환경에 있는 아동이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돌봄공백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난상황의 취약아동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감염 및 학대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포괄적 교육·보육·돌봄+복지·의료 협업 지원’과 ‘직접 찾아가는 방문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업무 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강·의료체계와 아동보호를 관장하는 사회복지체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이 연계되도록 한다(최윤경 외, 2020).

나. 아동관점의 대응체계

1) ‘코로나세대’ 아동의 생애발달 및 주요 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공적돌봄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이후 서비스 이용의 양과 돌봄의 질에 의해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이 저해될 수 있다. 비대면 환경과 줄어든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코로나세대’ 아동의 생애발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정서적·심리적 발달과 언어 발달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중재가 요구된다. 환아 아동, 격리 등을 경험한 아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으로 아동 개인의 경험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휴원기간 교육·보육·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가구와 아동이 갖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차이, 발달상의 격차를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혼자놀이와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아동이 갖는 인지 및 학습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계 형성의 공백을 보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2) 아동 최우선 원칙하 돌봄 방역체계

감염위험 환경에서 어린 영유아에게 누적되는 발달상의 스트레스와 격차,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일방적으로 집단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 영유아의 취약성 등 돌봄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과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아동관점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성인 신장 높이의 소독약 분사로 인한 아동의 눈 화상, 유치원 급식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영유아에게 전달되는 방역·감염예방 수칙의 세밀한 접근을 챙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가 크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실내 소독 약품의 기준, 방사 원칙(뿌리지 않고 닦음, 소독 후 사용 전 행균, 눈에 튀지 않도록 각도/위치 조절 등), 마스크 착용 원칙의 개별 아동 적용의 유연성, 집단활동을 통해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 영유아의 심리정서와 마음건강 챙김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감염 확진 및 격리조치 이행 과정의 아동중심 민감도 제고, 대면접촉과 애착·신뢰 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영유아에게 주위 환경(아동 본인, 부모, 주 양육자 등)에서 감염병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조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영유아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의료 현장에도 아동관점의 지침이 필요하다.

4. 위드코로나 국가수준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수립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보육과정의 운영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팬데믹 이전에 논의되어 온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의 강화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20년은 놀이중심, 아동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보육지원체계의 개편(기본보육-연장보육)이 시작되는 첫 해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운영과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당면과제인 교육·보육·돌봄(ECEC)의 전문성 제고가 보건·건강 분야의 보강과 연계로 확장되고, 디지털(Digital literacy)과 환경(Green literacy, UN SDGs)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교직원 역량, 아동관점의 연속성과 전이(Transition, Continuity)를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최윤경, 2020b).

가. 놀이중심/아동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의 교육력 제고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으로 현장에서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돌봄의 운영과 원격 교육 및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기존의 정규 교육·보육과정의 3개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맞았다. 앞으로 교육과정의 운영과 돌봄의 제공,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과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시기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 및 돌봄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 ‘Blended Educare system’으로 제공되고, 포스트코로나 아동 세대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기술,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교육력(pedagogy)과 디지털 역량, 보건·건강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체계적인 교사정책과 교사지원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최윤경 외, 2020).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기간 및 등하원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하여 가정에서 정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 가정학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예: EBS) 및 지역방송,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정규과정을 다양한 주체별(교직원, 부모, 아동)로 활용 가능하도록 탑재해야 한다. 영유아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 이북(e-Book) 개발 및 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영상과 지침의 제공이 요구된다.

나. 교육·보육·돌봄의 연속성 확보 및 전이과정(transition) 마련

아동이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가정 안팎의 환경이 분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ECEC 전반의 연속성(continuity) 확보와 전이(transition) 관점의 점검과 전략이

필요하다(OECD, 2017; 최윤경, 문무경, 2020). 팬데믹 상황에서는 돌봄공백의 경험으로 인한 격차 완화를 위해 아동 연령별 적응 및 전이의 과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신입원아와 장시간 등원하지 않은 재원아의 적응, 온-오프라인 환경을 경험하는 아동의 전이과정과 적응, 아동의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적응력을 염두에 둔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양한 공-사 영역의 교육과 보육, 돌봄의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공식 또는 비공식의 교육과 보육, 돌봄의 경계에 대해 아동과 교육적 관점의 고찰이 필요하다.

5. 나가며

위드코로나 상황이 요구하는 변화에의 적응과 대응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구조화와 연계의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향후 육아지원체계와 아동 대상 교육·보육·돌봄의 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은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과 교사의 근로-휴게시간 준수와 인력배치를 고려한 보육지원체계의 개편,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 등 주요 정책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가시화되는 시기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정과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초저출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의 육아지원체계가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와 비용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위드/포스트코로

나에서는 보건·의료와 정신건강, 복지가 함께 보장되는 포괄적 지원과 유아 교육·보육(ECEC)의 교육력 제고와 같은 질적·과정적 전략이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간과된 국가수준 교육·보육·돌봄의 전략과 교사의 전문성 증진, 이를 뒷받침하는 교직원 고용과 배치, 교사 지원의 체계가 필요하다. 가정 내 돌봄과 가정 밖 교육·보육·돌봄의 경험이 아동의 관점에서 분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안·밖, 온·오프라인, 공·사 영역 간의 연계와 포용의 접근이 요구된다. 디지털 언어(digital literacy)를 사용하는 미래세대 아동의 삶의 질을 견인하는 ECEC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돌봄의 운영에 온·오프라인 블렌딩이 요구되므로 비대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환경의 구축과 함께, 대면 상호작용의 비중이 큰 아동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비용-시간 지원 간의 연계를 체계화하고 일-생활-돌봄의 균형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예: 휴원기간 재택근무 시 자녀돌봄). ■

최윤경. (2020b). 포스트코로나 ECEC 및 육아 지원체계 대응 방안.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최윤경, 문무경. (2020). 코로나19와 영유아 교육·보육·돌봄(ECEC) 대응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코로나대응 협동연구-사회정책분야 중기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OECD. (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OECD Publishing, Paris.

참고문헌

최윤경. (2020a).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육아정책연구소.